제18대 국회의원 선거 포천시연천군 후보 초청 정책토론회

서면 질문 및 답변

박윤국 후보

"국책사업들을 추진하면서 국회의원들이 뒷받침을 잘해 줬으면 아마 이런 일이 없었을 겁니다"

장명재 후보

"삼성 문제는 재벌, 족벌의 문제지 직원들과는 상관없으며 포천·철원 전철 연장 사업 확정을 추진했습니다"

김영우 후보

"포천·연천이 영유아보육에 막대한 재정투자와 국가수발제도 공약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질문 이희승 ➡ 박윤국 후보

"시민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용될 포천시장 재선거비용에 대해 책임지고 상환할 생각은 없습니까?"

서면질문 무명 ➡ 장명재 후보

"여당시절 포천·연천을 위해 한 일과 규제를 풀었는지, 삼성출신으로서 삼성특검에 대해 입장을 밝혀주세요"

◀방청객 백기원 ➡ 김영우 후보

"방과후 결식아동 복지와 노인복지 회관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세요"

■사회자 배기목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정해 드렸지요 박윤국 국회위원 후보자라고 정정을 다시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근무하고 있는 대진대학교도 선단동 산 11-1번지입니다. 선단동에 저도 직장이 있으므로 주민세를 내고 있는 사람이지요. 선단동 문제를 제기해 주셔서 서완선 주부님 개인적으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들의 부임 문제 가산점 부여라는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접경지역 특별법과 관련해서 우리 지역은 접경지역입니다. 특수성을 충분히 감안해서 이 지역으로 부임하면 별도의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의 보완 강구로써 말씀하신 그런 걱정하시는 부분 해소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요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잘 협조해 주신 덕분에 방청석에서의 질문 세 분의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다소 지체되고 있습니다.

까다롭습니다. 이제 서면질의인데 4장의 서면질의가 들어왔는데 제가 받은 즉시 번호를 매겼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어떤 분을 먼저 할까 할 때는 소위말해서 선착순이라는 보편타당한 기준을 들이대려고 번호를 매겼습니다.

현재 모 후보님을 적시했는데 두 분께서 한 후보를 선택하셨어요. 한 후보가 질문 2장이고요, 나머지 한 후보가 1장하고, 나머지는 모든 후보에게 후보님 성함이 모씨인 것 같습니다. 모든 후보자께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까 제가 분명히 규칙상에 대상을 정해주십사 했는데 조금 착각을 하신 것 같은데요. 본인이 직접 손을 드셨기 때문에 발언 기회를 드립니다.

그래서 어쨌든간에 지금 두 후보만 발언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대로 제가 진행을 해 버리면. 그럼 한 후보께서는 답변 기회가 없이 되는 결과가 되고 그래서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여기 있는 두 후보에게 질문을 드리고 질문이 안 나온 후보에게는 별도의 설명을 받는 걸로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동의해 주시면 그렇게 하고 아니면 공정성에 다소 이의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들어온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어느 정도는 답변 중에 하나를 하고, 두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느 것은 서면질문서에 있는 것을 하거나 없으면 없는대로 두 분만 하도록 하든지.

그러면 후보 진행 서면질의 답변에 대해서 두 가지 제안을 사회자로서 드리겠습니다. 어떤 게 좋으시겠습니까? 먼저 질문 드리고 없으면 방청석에서 답변 안 받으신 후보에게 누가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그래도 없으면 없는 걸로 하고. 좋겠습니까?

(「예」하는 방청객 다수 있음)

알겠습니다. 사회자에게 권한을 많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김광분 선생님이십니다. 창수면에서 오신 분인데요 질문 대상은 모든 후보에게 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수면 운산리 담골에 현재 세워져 있는 병원적출물에 대하여라고만 간략히 말씀되어 있는데요 병원적출물로 인해서 피해가 있으신 모양입니다. 병원적출물 처리에 대해서 어떤 의견인지, 손을 드시면 제가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요 서면질의이기 때문에 마이크를 안 드리고 있습니다.

■방청객 김광분

감사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 병원적출물 사회자님 아마 그걸 모르시나본데 포천에 굉장히 큰 획기적인 일이었어요. 포천에서 그 일로 인해서 여러 사람이 죽었고 여러 사람이 형무소를 가는 이런 일이 있었던 과거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게 현재 진행이 또다시 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후보님들에게 왜 말씀을 드렸느냐면 환경문제는 솔직히 중국에서 황사현상이 일어나도 우리나라에 바로 오는 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후보님들은 다 당선 가능성을 갖고 후보에 올라오셨기 때문에 모든 후보님들에게 답변할 기회를 바란 겁니다.

만약 당선이 되신다면 어떻게 해 주실 것이냐 우리 주민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하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예요.

■사회자 배기목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정해진 규칙에 입각한 질문 답변 마치고 다시 한번 모두에서 답변을 듣지 않으면 김광분 선생님께 만족할 만한 회신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내용들은 숙지하셨으리라 믿고요 그러면 서면질의 들어온 대로 하겠습니다. 아까 한 후보에게 2개가 들어왔는데 둘 중에 내용은 일단 차차 하겠습니다.

먼저 들어온 질문지를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승 선생님께서 소흘읍 송우리에 거주하시는 분입니다. 질문 대상 후보 박윤국 후보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질문 내용을 그대로 읽겠습니다. 이 선생님의 질문입니다. 시민의 의지와 상관없이 포천시장을 다시 선출하는데 있어 포천시민의 세금이 사용되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의 혈세로 치러질 재선거 비용에 대해 책임지고 포천시민에게 상환할 생각은 없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그대로 제가 읽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박 후보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호 3번 무소속 후보 박윤국

먼저 공교롭게도 이희승 질문자가 김영우 후보의 측근의 운동원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다 저도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지난 6년이라는 세월을 정말 열심히 단 하루의 휴가도 없이 우리 시와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그동안에 다른 분들의 경영을 포천시청이라는 회사를 경영하다가 약 한 670억 정도 빚을 졌습니다. 제가 들어와서 6년 동안에 약한 237억의 부채를 상환했습니다. 그래서 포천시청이라는 회사를 잘 경영하고, 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지금 현재 이 토론회에서 나오는 많은 문제들을 전부 스타팅 해놨습니다.

교통문제, 대한민국의 최초로 출퇴근 전용도로를 비롯해서 크고 작은 많은 각종 사업들, 또 이 시가 앞으로 가야 될 이런 방향들을 전부 스타트 해놨습니다.

어떤 분들 그런 얘기를 하지요 "왜 그걸 다 마무리 안 하느냐" 제가 공사감독이 아닙니다. 회사를 보더라도 대표이사는 그걸 운영만 하고 정책적으로 총체적인 걸 보고 현장에 있는 건 감사 감독관이 하듯이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 일을 추진하면서 국책사업들을 추진하면서 정말 국회의원들이 뒷받침을 잘해 줬으면 아마 이런 일이 없었을 겁니다. 여기에서 오늘 나온 모든 얘기들이 다 수도권 정비 계획법, 국가발전 특별법, 군사시설 보호법 이런 모든 문제들이 전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시장으로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저는 여야를 뛰어넘으면서 야당 시장으로서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일들을 다해 놨습니다.

앞으로 그런 경험을 토대로 해서 연천도 역시 또다른 좋은 여건이 있는 연천이라는 도시를 좀더 제대로 된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민자고속도로가 만세교까지 들어왔다, 민자고속도로가 강남에서 포천까지 25분이면 민자고속도로를 다시 37번 연천에 연결시키면 약 40분대면 연천에 들어서게 됩니다. 서울~부산, 서울~대구 이런식으로 마지막 종착역이 발전하듯이 이런 교통의 인프라를 구축해서 연천과 포천이 확실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사회자 배기목

고맙습니다.

말씀을 시작하시기 전에 말씀을 주시면서 답변해 주셨으니까요 포용력을 보여주신데 대해서 사회자로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번째 서면질의서입니다.

이번에는 장명재 후보께 질문이 들어왔네요. 역시 그대로 읽겠습니다.

여당 시절 힘 있을 때에도 화려한 이력이 있음에도 포천·연천을 위해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것 같은데 도대체 야당인 현재 무슨 일을 어떻게 지역을 위해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당 시절 규제라도 풀었던 것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때는 지역에 관심이 없다가 최근에 관심이 생기셨는지, 아울러 삼성출신인데 최근에 이건희와 그 가족 그리고 삼성그룹 전체가 대한민국을 얼마나 우습게 보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삼성특검에 대한 입장은 어떤 겁니까? 제가 그대로 읽었습니다.

■기호 1번 통합민주당 후보 장명재

성함을 말씀해 주시지요 누구신지.

■사회자 배기목

죄송합니다. 성함이 안 적혀 있네요.

■기호 1번 통합민주당 후보 장명재

지금 여당 후보쪽에서 계속 사람들을 내세워서,

■사회자 배기목

죄송합니다 장후보님.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사회자의 실책으로 해 주십시오.

이것은 성명이 안 적혀 있는 것이니까 이 질문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호 1번 통합민주당 후보 장명재

하겠습니다.

■사회자 배기목

괜찮겠습니까?

■기호 1번 통합민주당 후보 장명재

하겠습니다.

■사회자 배기목

좋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기호 1번 통합민주당 후보 장명재

저를 반대세력들이 제가 상당히 경쟁력이 좋은 모양이지요. 당선 가능성이 높으니까 저를 아주 집중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있는 것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삼성그룹 공채출신입니다. 삼성전자 정보통신 부문에서 일을 했습니다. 현재 삼성의 문제는 그 재벌가 그렇지요? 삼성의 회장을 비롯한 집안의 문제이지 삼성그룹 내에 직원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제가 삼성에서 일을 해봤지만 삼성만큼 젊고 능력 있고 똑똑한 집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삼성전자가 세계 일등의 기업으로 성장한 겁니다. 그래서 재벌, 족벌가 그리고 삼성에서 근무하는 직원들과는 같이 보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3년 전 2005년도 국회의원 포천·연천 재선거에 출마를 했습니다. 다들 아실 겁니다. 그 3년 동안 저는 우리 통합민주당 또는 전신 당에서 계속 당원협의회 포천·연천 위원장을 맡으면서 계속 지역 관리를 하면서 3년간 지역 주민들을 계속 만나왔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저를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아닌 상태에서 지역의 행사에 가면 홀대를 받으면서 아무리 집권당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서는 집권당 인정을 못 받았기 때문에 행사장에 들어가면 소개를 안 시키고 그래도 저는 꿋꿋이 들어갔습니다. 소개를 안 시켜도 들어가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3년을 찬바람 속에서 버텨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정권은 다시 뺏겼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포천·연천에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이 나서야지만이 이 낙후된 포천·연천, 이 엉망인 연천·포천을 바꿀 수 있다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나서게 된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도대체 그럼 뭘 했느냐" 국회의원이 아니니까 한 게 없겠지요. 그렇지만 했습니다. 일단 작년 11월 달 건설교통부에서 뭐가 발표가 됐냐면 의정부 포천·철원 전철 연장 추가검토 대상 사업이 확정됐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우리당 대통령 후보인 부대변인을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여당의 힘으로써 건설교통부와 조율해서 의정부 포천~철원간 광역교통망 계획에 제가 적극 개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 민자고속도로 유치에 있어서도 그 당시 장병원 예산기획처 장관 저하고 굉장히 친한 사이입니다. 제가 두 번 독대를 하면서 제일 후순위로 꼴등에 있는 서울~포천 간 민자고속도로를 빨리 연결해 달라 그 결과로 이번에 민자고속도로가 확정된 겁니다.

■사회자 배기목

시간이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오늘 정책토론회라고 분명히 명기가 돼 있고 그렇게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면질의에서 2건 공히 정치적 이슈를 주제로 하신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역시나 어차피 이 토론 자체가 정치행위의 일종이라고 본다면 정치적 이슈를 주제로 해서 질문도 하실 수 있는 것이지요. 하실 수 있는 것인지 사회자로서는 저 역시 포천·연천 지역을 잘 알고 제 말투에서 느끼시겠지만 이 지역 출신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가 대진대학에 몸담은지가 14년 됐습니다. 유학을 마치고 바로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는 말하자면 생활의 터전인 곳입니다.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못지 않게 관심이 많아요. 해서 저도 이 자리에 앉으면서 남다른 각오로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야말로 이 지역이 인간의 삶터로써 풍요롭고 행복한 땅을 만드는 그런 정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는 그런 자리를 만들고 싶은 것이지요. 막판에 정치 이슈로 가는 건 아닌데 정치적 이슈에 휘말리다 보면 정책이 도출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판에 이런 주제가 나와서 조금 무거워진데 대해서는 사회자로서 조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또 성명이 없었는데 제가 내용만 몰입하다 보니까 읽고 말았어요. 그점은 사회자의 분명한 실책입니다. 여러분께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면질의에 대한 것은 일단 들어온 것은 마치도록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 한 후보가 답변을 못 받았거든요. 김영우 후보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정치적 이슈는 제외하고 정책과 관련된 질문을 플로어에 드리겠습니다. 없으면 안 들어온 걸로 간주하고 주민 여러분들의 질문 기회는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손 드신 겁니까?

가급적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소개 부탁 드릴까요?

■방청객 백기원

신북면 기지리에 사는 백기원입니다.

첫 번째 방과 후 저소득 결식아동에 대해서 복지에 관한 구체적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복지회관을 구체적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자 배기목

백기원 선생님 고맙습니다.

복지지요. 복지에 관한 오늘 주제에서 복지에 관한 부분들이 조금 아까 노약자, 어린이 나왔습니다만 복지에 관한 부분이 조금 미흡했는데, 고맙습니다 마지막에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주신 질문 고맙습니다.

방과 후 결식아동 문제 어떻게 도와줄 방안이 있느냐, 그 다음에 요양 독거노인들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에 대한 질문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김후보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호 2번 한나라당 후보 김영우

제가 시간이 없더라도 이것은 10초가 됐든 20초가 됐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 계산은 그대로 두시면 좋고요.

포천의 유권자들은 여태까지 잘못된 정치 관행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생활 삶의 피해를 본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재보궐 선거에 드는 비용문제를 이야기한다든지 이런 것을 이야기할 때 단순히 이것을 정치적인 질문으로 그냥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큰 사항입니다. 15억이 작은 돈입니까 농촌에서?

나는 그것을 정치적인 문제다, 정치적인 공격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정치인의 도덕성이라든지 정치관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호 3번 무소속 후보 박윤국

사회자?

■기호 2번 한나라당 후보 김영우

답변 계속 하겠습니다.

■사회자 배기목

답변 끝나고 이의 제기해 주십시오.

■기호 2번 한나라당 후보 김영우

지금 방과 후 교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회자 배기목

질문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십시오.

■기호 2번 한나라당 후보 김영우

방과 후 교실 그리고 결식아동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는 골고루 영양섭취를 하게 해야 된다, 잘살고 못 사는 차이를 넘어서 어린이들에게는 똑같은 교육의 기회, 똑같은 영양섭취의 기회를 줘야 된다 그것이 미래에 우리나라의 건강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이들에 대한 투자는 결코 버리는 돈이 아닙니다. 작년에 우리가 대선 공약 만들 때도 당시 후보님에게 그런 것을 누차 부탁을 드렸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아주 어렵게 자라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린이에 대한 투자는 그것을 단순히 재정적인 측면에서만 바라보지 마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영유아 보육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막대한 재정 투자를 할 그런 공약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치매노인이라든지 요양이 필요한 노인들은 단순히 한 가정에서 책임질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한 가정에 행복이 다 무너지고 많은 행복이 깨지는 그런 현상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치매노인이라든지 요양이 필요한 분들에 대해서도 국가 수발 제도라는 것을 저희가 대통령 공약으로 만들었습니다. 포천·연천 지역에서도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